

〈제 657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은행

#### ◆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직원 간담회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본점에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한 우수직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객에 대한 관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단순한 사기 수법을 넘어 정교하고

조직적인 지능형 범죄로 변모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시행됐다.

###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 ◆ RCY단원들과 연탄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6일 광주 남구 사직동 일대에서 초중고대학 RCY단원 및 지도교사 90여명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 사랑방미디어

#### ◆ 사랑방 창사 31주년 기념식



사랑방미디어(회장 조덕선)는 지난 5일 북구 중흥동 SRB빌딩에서 창사 31주년 기념식과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매월 2곳의 지역가정을 선정해 책상, 도서 등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광주 187곳, 캄보디아·몽골 등 해외 국가에

4개의 공부방이 마련됐다.



## 삼성전자

### ◆ 사내식당 동원홈푸드 선정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6개 사업장의 사내식당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 결과를 발표했으며, 광주사업장은 동원홈푸드가 선정됐다. 경쟁 입찰에는 약 40개 업체가 참여해 프리젠테이션 평가,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까지 3단계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4개사와 중견기업 2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실질적인 상생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내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인 경우 가점이 부여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점진적인 사내식당 전면 개방을 통해 임직원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비맥주 광주공장

### ◆ ‘힙맥 플레이스’ 캠페인



오비맥주는 지난 7일 지역별 주요 한식 맛집들과 협업하는 ‘힙맥 플레이스’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맥은 대표 한식 메뉴인 삼겹살, 족발, 곱창 등과 함께 한맥의 공합을 즐길 수 있는 대표 맛집을 ‘힙맥 플레이스’로 선정, 소비자에게 한맥만의 ‘풍부한 맛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한맥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힙한 거리에 위치한 한식 대표 맛집에 ‘힙맥 플레이스’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힙맥 플레이스’에서는 ‘좋은 음식은 좋은 라거를 찾게 만든다’는 메시지 아래 한맥이 추천하는 대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 호반건설

### ◆ 첫 그룹광고 캠페인 '미래' 편 공개



호반그룹은 호반이 만들어갈 미래와 지향점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첫 그룹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호반그룹의 '미래' 편 광고는 '호반과 함께 가는 미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가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해 거대한 사막과 강, 바다 등 자연의 풍경이 등장하고, 편리하고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모습과 미래를 표현하는 하늘을 차례로 보여준다. 광고는 '퓨처 이즈 온' (Future is ON)이라는 문구와 호반의 CI(Corporate Identity)로 마무리된다.

'퓨처 이즈 온'은 'HOBAN'의 'O'와 'N'을 연결해 호반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의지를 담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상 기법을 통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호반그룹의 모습을 표현했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II. 광주경총 소식

### 〈광주경총 이사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경제 현안 논의－



본회는 지난 9일 오전 라마다호텔에서 제7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사무국의 노동경제 동향 보고에 이어 신입회원 41개사에 대한 가입 승인과 추경으로 확대 편성된 일자리 사업 예산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김봉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경제 관련 법안들이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업 환경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광주경총은 전국경총과 더불어 대정부와 의정활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입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번호	회사(기관)명 및 소속	성명	번호	회사(기관)명 및 소속	성명
1	(주)디에이치글로벌	이정권	22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차재진
2	(주)현대하이텍	김용구	23	(주)포이엠	전인옥
3	명광사무기(주)	김명수	24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박화석
4	(주)다나메디컬	양판정	25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전일승
5	광주하남신용협동조합	강동환	26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윤석구
6	(유)참푸른글로벌	송석찬	2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허 정
7	(주)거도	김종인	28	(사)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이권재
8	(주)컬쳐플래닛	문웅빈	29	(재)광주테크노파크	김선민
9	(주)신성기업	김봉균	30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김명술
10	(주)효광	최남주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김무영
11	(주)웨딩그룹위더스광주	백성순	32	前.광주서부교육장	이영주
12	시루연(주)	박홍수	33	데일리스포츠 한국	나명엽
13	(주)부광기업	정병용	34	두루마리갤러리	나마리
14	광주푸드시스템(주)	전양현	35	에너지관리진단명장기업	정몽석
15	(주)에스존	조범준	36	송정농협 선운지점	강기순
16	(주)전기안전관리	민의식	37	시인협회	장진규
17	대성세무법인(유)	강명수	38	이건업한의원	이건업
18	(주)H.K	정명조	39	코나영어센터	김영임
19	(주)에이치더블유홀딩스	양진석	40	前.폴리텍대학	권대주
20	(주)티에이치홀딩스	양승빈	41	한국문학메카본부	황하택
21	(주)호원테크	윤창권			



II. 광주경충 소식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네트워킹 모듬활동〉



본회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은 지난 11일 기업형 드림청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모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네트워킹 모듬활동은 ‘서점 데이트’라는 주제로 도서 구입 후 해당 도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간략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경험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와 함께 일경험 후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 일지(11.8 ~ 11.12)

11. 8 (월)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인터뷰 심사	11.11 (목)	●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네트워킹 모듬활동
11. 9 (화)	● 제73회 이사회 개최 ● 서구청 노사민정협의회 심사지원		
11.10 (수)	● 광주인자위 회의 ●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 간담회	11.12 (금)	● 제1537회 금요조찬포럼



### 〈제1537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김영록(넥스트챌린지 대표) 주제: 한국경제의 게임체인저 “변종의 늑대”**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1월12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김영록 넥스트챌린지 대표를 초청하여「한국경제의 게임체인저 “변종의 늑대”」란 주제로 제1537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바야흐로 공장도, 유통도, 자본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 더 이상 고정된 계획도, 통용된 규칙도 먹히지 않는다. 이것은 곧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결정적 장면이다. 이 파괴적인 틈새를 뚫고 들어온 이들이 바로 '변종의 늑대'다. 변종의 늑대라 불리는 젊은 스타트업들은 과거 창업세대나 벤처세대와는 또 다르다. 기술과 감성 중심으로 재편된 지금의 비즈니스 생태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본이 없다는 것을 '야생성'으로 돌파함으로써 기존 시장을 파괴해나간다. 하지만 이러한 큰 가능성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죽음의 늪이라고 의심한다.

창업은 청년들이 돈을 버는 방법 중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유사 이래 창업에 가장 우호적인 시기다. 스타트업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남이 아닌, 나에 의해 움직이는 삶, 이러한 목표의식과 자기 주도성이 바로 그들을 스타트업 세계로 이끈다.

미국, 중국, 영국,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스타트업을 키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예술 대신 창업부분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유럽의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되었다. 핀란드는 마이너스였던 경제성장률을 스타트업을 통해 끌어올렸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과 법인세율 0%를 강조하며 국내외 스타트업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자본과 대학 인재들의 관심이 스타트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자체도 스타트업+도시재생+스마트시티+교육 묶음의 청사진을 하나로 그릴 수 있는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게 안되면 일자리, 경제, 도시, 저출산, 고령화가 천천히 단절되어 생명력을 잃게 된다. 스타트업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자 성공의 키를 쥐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다.





## 1. 노사 동향

### ■ 경총,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경총은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해고제도 개선 방안과 근로기준법제 개선에 대해 논의(11. 10)

※ 주요 참석자

(발제) 이정 한국외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좌장)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토론) 권혁 부산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 강조
- 발제를 맡은 이정 교수는 ▲미국의 해고자유 원칙, ▲독일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 인정, ▲일본에서 일신상·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때 우리나라도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참고] 해고법제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한 임금체계의 변경 등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현행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해고규제 완화	▲ 독일과 같이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를 명시하거나 일본과 같이 통상해고를 포함하는 일반조항으로 개정 필요
해고무효 시 금전보상 확대	▲ 노사 간 신뢰가 파괴돼 원상회복 기대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도입	▲ 근로계약 해지와 변경된 근로조건을 동시에 제시한 다음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또한,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점진적 축소와 계약 자유의 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8차 전원회의 개최(11. 9)

- 금번 전원회의에서는 5개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FGI에 대한 결과를 노사 위원들이 각각 발표
  - 경영계는 FGI 결과 파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단협상 유급조합 활동 규정 활용으로 조합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음, ▲상급단체 파견자가 기업 노사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이 거의 없음, ▲조합비 인상 등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 미비,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
  - 반면 노동계는 FGI 결과 ▲교대제 사업장에서의 노조활동 애로, ▲산업안전,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대표 역할 수행 및 코로나19에 따른 조합원의 고충처리 증가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필요성 주장

#### ■ 고용부, 동절기 산업안전 관련 점검 예정

- 고용부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건설현장 규모 별로 화재, 질식, 안전조치 미흡,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미준수 등을 중심으로 감독 실시 예정
  - 고용부는 감독결과에 대해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도록 해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2. 법제 동향

### ■ 정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3)

- (발의 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내용)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 적용 요건을 마련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 설정

### ■ 김성원 의원(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1.8)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남성에게까지 확대·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주요 내용) 여성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야간근로·휴일근로 동의 조항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조항 신설